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

독서 이야기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 우리는 이야기를 수용적 문학치료라는 관점에서 독서가 주는 치유의 힘과 그 힘을 얻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에리히 프롬이 제시한 '존재적 측면'의 독서를 컨셉으로 삼아보자.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의 한 장에서 독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글_변학수

존재적 양식의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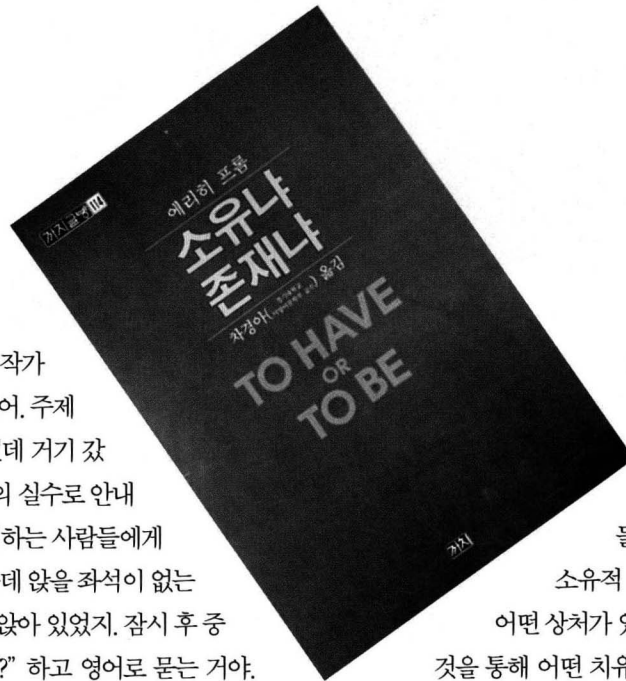
“독자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줄거리를 알고 싶어 한다. (중략) 이런 경우 소설 텍스트는 독자를 흥분시키는 일종의 전회역할을 하며,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결말이 절정을 이룬다. 결말을 알고 났을 때 독자는 마치 자기 자신의 기억들을 헤집어본 듯이 현실감 있게 이야기 전체를 소유한다. 그러나 그가 획득한 인식은 아무것도 없다. 소설 주인공을 파악하여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능력도 심화시키지 못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우친 바도 없다.” 《소유냐 존재냐》(까치글방, 2000, 57쪽)

마음의 치유가 통찰과 정서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소설의 내용을 알고 소설에 심취하는 것이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령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사고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 사고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나 또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인가, 나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의 크기와 사고의 과정 그리고 구경꾼들의 모습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사고를 기억하고 소유하는 일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던 에리히 프롬의 눈에 이런 일이 구별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존재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님으로써 가능한 것

스스로에 대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느끼게 하는 양식의 독서만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을 프롬은 존재적 양식의 독서라고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공지영의 연재소설 〈즐거운 우리 집〉에서 찾아보았다.



“얼마 전에 말이야. 한국하고 중국 작가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작가 회의를 했어. 주제는 ‘상처와 치유’ 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거기 갔더니 엄마 명찰이 없는 거야. 주최 측의 실수로 안내 책자에도 엄마 이름이 빠졌고...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더니 엄마 명찰을 급조해 줬는데 앓을 좌석이 없는 거야. 히는 수 없이 중국 작가들 틈에 앉아 있었지. 잠시 후 중국 작가 한 사람이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영어로 묻는 거야. 내가 아무개이고 소설을 씁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열른 안내 책자에서 내 이름을 찾고 있더니 영 못 찾겠는지, 나랑 비슷한 여자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여자가 당신인가요?” 하잖아. 그때 엄마의 머릿속으로 짧은 영어 세 마디가 떠올랐어. ‘It’s not me, I’m not here, it’s not my fault...’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 나는 난데 내가 아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없다니, 그럼 여기 없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이며, 더구나 우스운 건, 내가 왜 거기서 그 사람이 궁금해 하지도 않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내가 입을 피해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하고 말이야... 남들은 ‘상처와 치유’ 에 대해 열심히 떠드는데 엄마 혼자 한구석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거기 없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 고민에 빠진 거야... 나중에 혼자 생각했지. 그래 상처와 치유가 별개냐? 내가 내가 아닐 때, 그것은 상처이고 내가 다시 나를 찾을 때, 누구에게도 먼저 내 잘못이 아니라구요, 변명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치유가 아니겠느냐고....” (《중앙일보》 인터넷판 연재 48회)

인간이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월을 살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 모두가 에덴이나 선유동에서 암브로시아나 벵타만 먹으면서 신들처럼 산다면 그곳에는 어제란 말도 존재하지 않고 상처란 말도, 변명도, 치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소설가들은 산문을 쓰는 사람보다 확실히 감각이 뛰어나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글의 화자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가능하다.

나의 존재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님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말해본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상처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적 양식의 삶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상처에는 어떤 상처가 있고 그것을 자신은 어떻게 형상화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지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남들은 상처와 치유에 대해 열심히 떠드는데” 이 소설의 화자가 “혼자 구석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존재적 삶을 말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이 화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추체험하라고 한다.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 책자에는 없어요.”

보르헤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존재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작가가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것을 회피하고 변명하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거나(이를테면, 이 글의 작가는 이혼해서 서로 아버지가 다른 아이 세 명을 키우면서 살고 있대, 같은), 그에게 동정심을 보내고 그와 동화하고 그에게서 단순히 위로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은 소유적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포테이토칩이나 씹어대는 일처럼 무료하고 반복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작가들 앞에서 화자가 그렇게 변명할 때 차라리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 책자에는 없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적 독서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변화수 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